

2020년 9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사무관 손경문(2234) / 제공일 : 9월 14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수급여건 악화로 가격 강세 지속중이나 추석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 없을 전망 [서울경제 9.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☐ 지난 10일 aT가 조사·발표한 올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287천원으로 전년(272)대비 5.5% 상승
 - * 전통시장(238천원, 전년비 4.0%↑)이 대형마트(337, 6.6%↑)보다 29.4% 낮은 것으로 조사
- ☐ 차례상 차림 비용은 조사시점, 조사대상, 조사기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
 - * 한국물가협회(9.7.발표) : 전통시장 239,900원(전년비 9.5%↑)
- ☐ 연초 냉해, 코로나19 장기화, 역대 최장 장마와 3차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여건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며
- ☐ 추석이 임박할수록 차례상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
- ☐ 추석 성수품 구매가 증가하는 추석 2주전인 16일부터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(평년대비 1.3배 공급 확대)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
- ☐ 9월 중·하순경 부터는 사과·배, 배추·무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석 성수품 물량 측면에서의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
- ☐ 서울경제 A02면 <살림 팍팍한데...올 차례상 비용 20%↑ 30만원 훌쩍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13일 한 대형마트에서 4인 가족 추석상 물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추석상은 30만 5,171원으로 전년보다 19.7% 오른 수준
- 추석이 임박할수록 추석상 비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.3배 확대*하고,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「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9.16. ~ 29(2주간), 농산물 1.6배, 축산물 1.2배, 임산물 2.8배 등 평균 1.3배 확대 공급

- 추석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석 차례상 구입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차례상 차림비용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차례상 차림비용과 전망은 조사시점, 조사품목, 조사기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, 몇몇 기관에서 발표한 올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기관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	발표일	조사대상	조사결과
한국물가협회	9.7.	특광역시 6개지역 전통시장 8개소, 29개 품목	전통시장 239,900원(전년비 9.5% ↑)
(사)한국물가정보	9.8.	서울지역, 전통시장 3개소, 대형마트 4개소, 35개 품목	전통시장 270,500원(전년비 16.5% ↑), 대형마트 404,730원(전년비 24.7% ↑)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9.10.	전국 19개 도시, 전통시장 18개소, 대형마트 27개소	전통시장 237,820원(전년비 4.0% ↑), 대형마트 336,850원(전년비 6.6% ↑)

□ 올해는 연초 냉해, 코로나19 장기화, 역대 최장 장마와 3차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 여건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며

○ 집중호우, 장마 등으로 7~8월 시설채소 중심으로 높았던 가격이 장마 이후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

○ 장마, 태풍 등 누적된 피해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
* 도매가 지수 : (5월)110.5 → (7)114.7 → (8.중)123.6 → (8.하)113.9 → (9.상)114.3

□ 연초 냉해·낙과 피해 등으로 사과·배 생산이 감소하는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공급 측면에서는 추석 수요 물량 조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'20년 생산 전망 : 사과 491천톤(평년 552천톤, △11%), 배 162천톤(평년 234천톤, △31%)

* 추석 수요량 / 9월까지 공급 가능 물량 : (사과) 55천톤 / 73, (배) 53천톤 / 56

○ 배추·무는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높으나, 추석까지 출하되는 물량 감안시 수급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

* 배추 출하량(천톤/평년비) : (9.상) 53(8.4%↓) → (9.중p) 52(2.6%↓) → (9.하p) 46(1.6%↓)

* 무 출하량(천톤/평년비) : (9.상) 26(11.2%↓) → (9.중p) 27(3.0%↓) → (9.하p) 24(0.2%↑)

- 수급 불안시 출하조절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

* (배추) 출하조절 물량 5천톤,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8천톤, 미입고 비축물량 1천톤

* (무) 정부비축물량 1.5천톤,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44천톤, 계약재배 8천톤

○ 상대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한우·돼지고기는 사육두수가 증가한 가운데, 도축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사육두수('20.6) : (한우) 317.5만(평년比 9.3%↑), 돼지 1,109만(평년比 1.2%↑)

□ 농식품부는 방제지도, 약제 할인공급 등 태풍 이후 작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

○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, 명절 수요가 몰리는 과일·축산물 중심으로 한 할인행사, 대형마트·온라인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할인캠페인(20%↓, 최대 1만원 한도)등을 통해 성수품 수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.

* 사과·배 각 2.3만세트(5kg), 사과·배 혼합 5.4만세트(6kg), 축산물 257천 세트 (농협 할인판매 7천 세트(한우 4.8천, 한돈 2.2천), 가공품 25만세트)

○ 아울러, 통상 추석 성수품 구매가 증가하는 2주 전인 16일부터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(평년대비 1.3배 공급 확대)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9월 중·하순경부터는 사과·배, 배추·무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추석이 가까운 9월 하순경 공급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
□ 향후 aT(보도자료, www.kamis.or.kr)를 통해 차례상 차림비용 정보(9.17, 24일)와 성수품 최적 구매시기 정보(9.17)도 제공할 예정이므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성수품 구매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